



1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에콰도르와의 친선경기에서 한국축구대표팀의 객태휘(오른쪽에서 세번째)가 헤딩슛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정무호 아르헨 격파 해법 찾았다

에콰도르 평가전 이승렬·이청용 연속골 2-0 이겨

허정무호가 남아공월드컵 아르헨티나전을 앞두고 자신감을 불어 넣었다. 한국축구대표팀은 16일 6만여 관중이 들어선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에콰도르와 평가전에서 이승렬의 결승골과 이청용의 썬킥골에 힘입어 2-0으로 승리를 거두며 월드컵 원정 16강 진출 기대치를 높였다. 특히 FIFA 랭킹 36위인 에콰도르는 남아공월드컵 남미예선에서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1승1무의 우위를 보였던 전통 남미 강호인 만큼 허정무호는 이날 승리로 같은 조에 속한 아르헨티나와의 2차전도 충분히 승산이 있음을 보여준 한편 승부였다.

특히 이날 경기는 허정무호의 최종 엔트리 발표를 앞두고 열린 만큼 선수들의 투혼은 더욱 빛을 발했다. 이날 골을 넣은 이승렬과 이청용은 이미 허 감독의 흡족한 표정 속에서 합격 판정을 받아 놓은 상태이다. 광주 출신의 기성용과 염기훈, 김재성, 오범석도 활발한 경기를 펼치며 승선 가능성을 높였다. 한국대표팀은 전반 볼 주도권을 장악하며 상대 문전을 두드렸으나 에콰도르 골키퍼의 선방으로 좀처럼 골문을 열지 못했다. 하지만 후반들어 활발한 공격력을 보인

한국은 후반 27분 이동국과 교체 투입된 이승렬이 염기훈의 백헤딩 패스를 받아 상대 수비 한명을 제치고 멋진 선제골을 터뜨렸다. 이후 상승세를 탄 한국은 40분 이청용이 상대 추격의지를 꺾는 썬킥골로 승부를 마무리 지었다. 허정무호는 지난 2007년 12월 출범 후 37경기에서 공식 전적 20승13무4패를 기록했다. 대표팀은 예비 엔트리(30명) 중 4명을 추려낸 26명의 명단을 확정된 뒤 22일 출국해 일본(24일), 벨라루스(30일), 스페인(6월3일)과 평가전을 치르고 6월5일 '결전의 땅'

인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입성한다.

/서울경기기자 swseo@kwangju.co.kr

월드컵 한국대표단 출정식

에콰도르와의 국내 마지막 평가전에서 2-0의 승리를 거둔 축구국가대표팀이 출정식을 갖고 월드컵 도전을 시작했다. 사상 첫 원정 16강에 도전하는 축구 국가대표팀은 1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6만여 만원 관중 앞에서 출정식을 갖고 월드컵 향배에 나섰다.

/연합뉴스



연패를 기록했다.

이날 패배로 올 시즌 일요일 경기에서 단 2승을 거두는 데 그친 KIA의 일요일 승률은 0.286(2승 5패)까지 떨어졌다. 시즌 승률도 20승 20패로 5할로 복귀했다.

KIA의 공격이 진행된 1회초 절호의 득점 기회가 나온 반면에 한화가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다.

1회초 선두타자 이용규가 류현진의 초구를 공략해 좌전 안타를 만들어냈다. 김선빈의 희생번트와 안치홍의 몸에 맞는 볼로 1사 1·2루. 하지만 최희섭이 헛스윙 삼진을 당하면서 루 아웃이 됐고, 스타트를 끊었던 이용

규마저 3루에서 아웃되면서 1회초 공격이 순식간에 득점없이 마무리 됐다.

탈삼진 하나를 포함 삼자범퇴로 1회를 막았던 로페즈가 2회 한화 타선에 못매를 맞았다.

우익수 플라시오 원 아웃을 잡았지만 송광민의 타구가 좌측 외야 펜스에 박히면서 2루타가 됐다. 이어진 정희상의 우전안타 때 불규칙 바운드가 나오면서 우익수 이종범이 공을 뒤로 빠트렸다. 그사이 2루 주자가 홈을 밟았고 타자주자는 3루까지 내달렸다.

페이스가 흔들린 로페즈가 정원석과의 풀카운트 승부 끝에 투런 홈런을 맞으면서 점수는 0-3이 됐다. 1회 위기를 넘긴 류현진의 구위가 살아나면서 KIA 타자들의 침묵이 이어졌다. 0-4로 뒤지던 5회초 1사에서 모처럼 차일목의 2루타가 터졌지만 후속타가 불발됐다. 6회에는 이용규·김선빈이 연속안타를 터트리며 분위기 반전에 나섰다. 안치홍의 삼진과 나지완의 병살타가 나오면서 폭투로 1점을 만회하는 데 그쳤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나이지리아, 北과 평가전 내달 6일로 연기

북, 파라과이 경기선 0-1 패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본선 B조에서 한국과 맞붙는 나이지리아가 애초 북한과 치르기로 했던 평가전 일정을 6월 6일(현지시각)로 연기했다. 나이지리아축구협회(NFF) 볼라지 오조

오바 사무총장은 16일(한국시각) 나이지리아 일간지 '컴플리트 스포츠'와 인터뷰에서 "최근 양국 축구협회가 협의의 통해 대표팀 평가전 일정을 6월 4일에서 6일로 이를 늦추는데 합의했다"며 "애초 일정을 지키고 싶었지만 여러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미뤘다"고 밝혔다.

데몰라 올라지레 나이지리아 축구협회 미디어 담당관이 이 신문을 통해 "나이지리아와 북한의 평가전은 내달 6일에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치르기로 했다. 북한 측의 요청에 따른 조치다"고 설명했다.

한편 44년 만에 월드컵 본선 무대에 오르는 북한 축구대표팀이 남미 강호 파라과이와 평가전에서 아쉽게 졌다.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본선 준비에 한창인 북한은 16일 오전(이하 한국시각) 스위스 니옹의 콜로브레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파라과이와 친선경기에서 후반 40

분 호케 산타 크루스(맨체스터 시티)에게 페널티킥으로 결승골을 내줘 0-1로 패했다.

남아공 월드컵 아시아지역 예선에서 활약한 공격수 홍영조와 문인국을 비롯해 골키퍼 리명국, 수비수 리준일과 박남철, 미드필더 김영준 등 23명의 엔트리를 국제축구연맹(FIFA)에 제출했던 북한은 이들을 파라과이와 평가전에서도 선발로 내세웠다.

월드컵 엔트리에 든 주축 공격수 장대세(가와사키)와 미드필더 안영하(오미야)는 일본 J-리그 일정 때문에 아직 북한 대표팀에 합류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추신수 메이저리그 6년만에 200타점

'추수 트레인' 추신수(28·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메이저리그 데뷔 6시즌 만에 통산 200타점을 달성했다.

199타점을 올리고 있던 추신수는 16일(한국시각) 미국 볼티모어 오리올 파크에서 열린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미국프로야구 방문 경기에서 0-2로 뒤진 9회 1사 1·2루 때 우익수 앞으로 굴러가는 깨끗한 1타점 안타를 쳐

서 200타점을 일궈냈다.

2005년 시애틀 매리너스에서 메이저리그 경력을 쌓기 시작한 추신수는 올해가 6번째 시즌이다. 2005년 첫해에는 1타점을 거두는 데 불과했으나 2008년 66타점, 지난해 86타점을 수확했고 올해는 34경기에서 20타점을 올리는 등 해마다 타점 쌓는 속도가 빨라졌다.

/연합뉴스

STANDARD 1982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대부분 보청합니다. ▶진단합니다. ▶귀가 청각을 높입니다.

국제보청기

www.kihf.com

본점 (062) 227-9940
충주점 (062) 227-9970

순천점 (061) 752-9940
목포점 (061) 262-9260
익산점 (063) 851-2422